

# 어머니의 강, 비파소리 들리는 금호강(琴湖江)



김기빈 | 한국토지공사 지명연구위원 /  
중앙지명위원회 위원(ddangkbb@hanmail.net)

## 금호강은 대구와 영천을 살찌운 삼산이수의 하나

날아갈듯 그림 그린 들보에서 학의 여윈 그림자를 보고,  
붉은 난간 굽은 곳에서 거문고 끼친 소리 듣네.  
맑은 바람 밝은 달은 천년의 모습이요,  
흐르는 물 높은 산은 태고(太古)의 마음일세.(원문 생략)

이것은 『신증동국여지승람』 대구도호부조 금학루(琴鶴樓)에 나오는 옛 시이다. 세계의 도시 중에 대구만큼 해발 1,000m급의 높은 산들이 병풍처럼 도시를 둘러싸고, 그 사이를 비단 같은 강물이 도시를 적셔주는 거대한 성채, 큰 언덕의 도시는 보기 힘들다.

산과 강은 언제나 짝을 이루며 서로 어우러지는 동반자이다. 대구시를 보면 그 말을 더욱 실감하게 된다. 흔히 대구의 산세를 가리켜 「북팔공(北八公) 남비슬(南琵琶)」이라 하는데, 왕성한 산악이 성채처럼 큰 분지 - 큰 언덕 - 대구(大邱)를 이루고 있다<sup>1)</sup>. 서쪽은 북쪽에서 흘러온 낙동강에 의하여 충적평야에 접하고 서북쪽에서 흘러온 금호강(琴湖江)과 비슬산에서 발원하여 남출북류(南出北流)하는 신천(新川)이 그 사이를 누비면서 오늘의 대구를 이루었다.

우리나라에는 자칭 타칭 「삼산이수(三山二水)」의 고장으로 꼽는 고을이 많다. 이태백의 시에서 비롯된 '삼산이수'는 산과 물이 어울려 펼치는 옛 고을의 이상적 모델이자 옛사람들이 희구하였던 풍류적 발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금호강이 흘러드는 대구와 영천이 그렇고, 또 멀리 전남 순천시나 충북의 영동군도 모두 삼산이수의 고장으로 꼽는다. 가령 대구의 경우는 앞에서 말한 북쪽의 팔공산(1,193m)과 남쪽의 비슬산(1,083m), 그리고 중간의 앞산(658.7m)이 삼산이 될 것이며, 이수는 물론 금호강과 신천이 된다.

대구 서북쪽에 위치한 영천시도 예로부터 삼산이수의 고장으로 널리 알려진 고을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영천군 조에도 북천을 설명하면서 "이 고을이 두 물의 한 합안에 있기 때문에 영천(永川)이라 이름하였으며, '영(永)'자는 이수(二水 = 永)를 뜻한다."고 하였다. 물론 영천시 영천시의 삼산은 팔공산과 채약산(採藥山), 그리고 금호강의 발원지가 되는 보현산(普賢山)-일명 모자산(母子山, 1,124m)이 된다.

1) 대구는 원래 대구(大丘)로 썼다. 옛 이름 달구벌의 음세(音寫)표기라 할 수 있다. 글자 그대로 큰(大) 언덕(丘)을 뜻하는데 영조 때 대구의 선비 이양제가 상소하여 대구의 '구(丘)'가 공자의 이름 '구(丘)'와 같으므로 고쳐 써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를 피휘라 함) 정조 때부터 구(丘)를 구(邱)로 바꾸어 쓰기 시작하였고, 그것이 다른 지명의 구(丘) 자에도 영향을 미쳤다.



금호강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그 강이 흘러드는 대구와 영천을 설명하고 있지만, 영천은 글자 그대로 강의 고장이다. 수많은 하천이 영천분지를 적시며 금호강에 합류하기 때문이다.

### 거문고와 비파와 바람소리가 어울린 땅이름의 합창

영천지방은 원래 골벌국(骨伐國)이라는 부족국가가 있었는데, 신라 11대 임금이 조분왕(助賁王, ?~247년, 재위 230년~247년)때 항복하고 절야화군(切也火郡)이 되었다. 여기서 '절야화'는 이두식 표기로서 '절(切)'은 가르다, 끊는다는 뜻의 '갈'을 적었는데, 골은 곧 강(가람)의 어원이 된다. '야(也)'는 조사이며, '화(火)'는 불=벌로서 들판을 뜻하므로 절야화)골벌)가람벌 -은 강변의 땅(강벌)이 되니 곧 금호강변의 땅을 이르는 것이다.

한편 대구는 세 가지 약기로 기억되어야 한다. 그 첫째는 금호강의 '금(琴)' 은 거문고이며, 둘째는 비슬산(毘瑟山)의 비(毘)는 비파요, 셋째는 비슬산의 슬(瑟)은 바람소리이다. 금호강은 거문고의 강, 비파의 강이다. 참으로 시적(詩的)이고

낭만이 넘치는 이름이다.

그런데 왜 '금호'라 부르게 되었을까? 『경상북도 지명유래 총람』에는 금호강이 흐르는 그 일대가 낮은 구릉지로서 호수(湖水)와 비슷한데<sup>2)</sup>, 바람이 불면 갈대밭에서 비파소리가 나기 때문에 '금호'라 불렀다고 풀이하고 있다<sup>3)</sup>.

이런 해석을 듣다보면 불가의 갈대끼리 비벼대면서 '스르렁 스르렁' 하는 소리가 바람결에 들려올 것 같다. 그래서 이 지방에는 곳곳에 '금(琴)'자가 들어간 이름이 많다. 앞에서 말한 옛 금학루며, 하빈고을의 별호가 '금호'라든지, 영천시의 금호읍이나 하양읍의 금락동(琴樂洞)과 같은 이름들이 그렇다.

둘째는 비슬산의 비파다. '비파'는 저 유명한 당나라 시인인 백낙천(白樂天, 772~846)의 「비파행(琵琶行)」으로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말이다. 당나라 현종 때 백낙천이 지방에

2) 금호강의 호(湖)는 호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해안이나 강의 물을 뜻한다. 기령 서울의 동호(東湖)도 한강을 뜻하고, 금강을 호강(湖江)이라 불렀다든지, 이런 예는 매우 많다.

3) 금호의 '금(琴)' 은 거문고로서 처음 중국의 신농씨(神農氏)가 만들었으며, 그 소리가 도양성령(陶養性靈)하므로 바른 소리가 아니면 음새(深邪)를 금하는 약기라 하였다. 금(琴)은 거문고를 뜻하고 비파와는 다른 약기이나, 여기서는 금과 비파를 동일시하였다.

유배되었는데, 그때 심양강에서 비파를 타는 여인을 만났다. 그 여인과 밤새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곡조에 가사를 붙인 것이 장시(長詩) 비파행이다. 옛날 ‘포산(菴山)’이라고도 불렀던 비슬산은 산꼭대기의 바위가 비파(琵琶)나 거문고(瑟)를 타는 형상과 같다 하여 비슬산이라 불렀다고 하니, 비슬산의 비파는 멀리 금호강과 신천을 내려다보며 울려 퍼지는 소리이다.

셋째 비슬산의 ‘슬(瑟)’은 비파도 되고, 거문고도 되고, 바람소리도 되는 약기이다. 부부간에 화목한 것을 ‘금슬(琴瑟)’이 좋다고 하듯이, 거문고의 금(琴)과 비파의 슬(瑟)은 같은 소리를 내는 약기이거나 서로 동일시할 수 있는 약기이니 구태여 구분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슬’은 ‘바람소리 슬(瑟)’로 풀이하고자 한다. ‘슬슬(瑟瑟)’이라는 말이 소슬한 바람소리, 쓸쓸한 바람소리를 나타내기도 하거나 와 금호강의 갈대가 어울려 거문고 소리를 내고, 비슬산의 비파가 청아하게 울리면, 비슬산의 슬, 즉 바람소리가 바람결에 그 소리를 멀리 퍼뜨릴 것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거문고와 비파와 바람소리가 어울려 거대한 대구분지에 땅이름의 합창, 땅울림의 합창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볼 일이다.

### 금호의 ‘금’ 은 곰(고마)-어머니의 사음(寫音) 표기

맑고 잔잔한 금호강에 배 띄우니  
오가며 하얀 물새들 가까이 오네.  
자연에 취해 달 밝도록 놀다 배 저어 돌아가노라.  
오호(五湖)에 노는 것만이 풍류가 아닐세.(원문 생략)

이 시는 조선 초기의 학자인 서거정(徐居正, 1420~1488)의 대구십영(大邱十詠)에 나오는 「금호범주(琴湖泛舟)」이다.

금호강을 이 지방에서는 보통 ‘삼백리 금호강’이라 부른다. 그 길이가 대략 116km쯤 되기 때문이다. 금호강은 영천분지 일대에 주남평야, 우호평야, 장천평야 등 기름진 들녘을 일구어 놓았지만, 그보다도 대구, 경북지방에서 으뜸가는 농업

생산의 터전으로서 금호평야(대구평야라고도 부른다)를 만든 어머니의 강이 바로 금호강이라는 사실이다. 말하자면 금호강은 대구와 경북 내륙을 적셔주는 젖줄로서 어머니같이 자애로운 강이라고 할 수 있다.

『세종실록지리지』나 『대동지지』 등 여러 문헌에도 금호강의 발원지를 밝히고 있는데, 경상북도 영천시와 청송군 경계의 모자산(母子山, 일명 보현산)을 그 발원지로 밝히고 있다. 이 모자산의 ‘모자’는 금호강의 ‘금호’를 국어학적으로 해석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으므로 그 발원지를 미리 언급하는 것이다. ‘금호’라는 이름은 마산이나 영산강, 금강 등 여러 곳에 같은 이름이 사용된 예가 남아있다.

물이 있는 곳에 삶이 있고, 강이 있는 곳에 역사의 씨가 뿌려졌다. 금호강의 ‘금’이 지닌 속내는 어떤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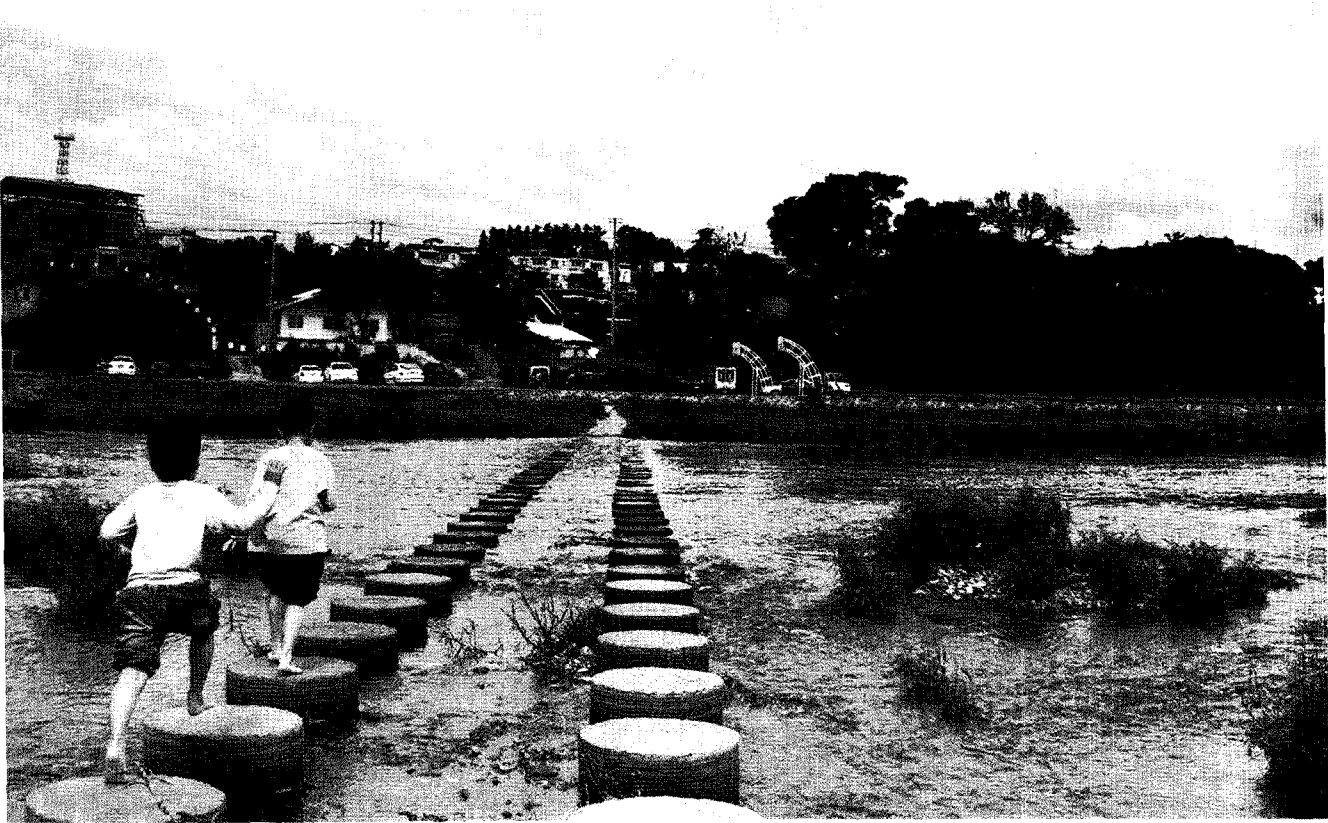
‘금’은 감·검·곰·굼 등과 함께 ‘금’ 계열어의 한가지로서 곰(고마)과 그 뿌리를 같이하는 말이다. 단군왕검의 어머니가 웅녀(熊女)로서 곰과 공주 곰나루의 곰녀 설화에서 볼 수 있듯이 금(곰)은 우리말의 어머니와 맞걸리는 말인 것이다.

금호강의 ‘금(琴)’은 곰(熊)의 변이표기로서 금(금·金·錦·絳 등)과 같이 소리를 빌린 음독형이다. 단군신화에서 고마(곰)는 단군의 어머니신이자 지모신(地母神)이었으며, 이것은 곰(곰·검·금)·흙(흙·흙·흙)·움(움·엄·음)·어머니(엄마·엄니)가 된 것으로 보았다<sup>4)</sup>.

따라서 금호강의 ‘금’은 고마(곰)의 변이형태로서 땅과 물과 어머니를 상징하는 지모신을 나타내며, 금호강의 발원지인 모자산(母子山)은 금호강의 금-어머니의 엄(母)과 맞걸리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또한 우리가 일상 사용하고 있는 ‘고맙다’는 말도 고마(곰) - 어머니에서 비롯된 말로서 고맙다 → 어머니의 은혜와 같다 → 어머니 같다는 말이 되는 데, 조상신- 지모신 숭배가 우리 말 속에 그대로 숨 쉬고 있는 사례로 보는 것이다.

금호강은 대구와 영천의 우물이며, 생명수가 되는 강이다. 이 강이 한때는 농약성분과 화학약품과 쓰레기와 강통과비

4) 정호완 『땅이름의 문화 찾기』 (이화) 57-77쪽



널 등 각종 폐수로 젖빛 거품을 풀어내던 시절이 있었다. 이제 금호강이 대구를 지나는 20여km는 앞으로 우리나라 하천 환경과 생태계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팔공산과 비슬산은 험한 바위가 돌출돼 있는 화산들로서 오행(五行)으로 보면 화체산(火體山)에 해당합니다. 주변 산은 지글지글 끓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 불을 식혀 줄 물이 너무 적어요, 금호강과 선천이 있기는 하지만 이 정도의 수량(水量)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라고 대구지방의 환경문제를 풍수적으로 평가한 어느 지리학자의 말에 수궁이 간다.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4대강 운하나 4대강 개발의

필요성이 거론되었을 것이다.

강 이름에서 비파소리가 나고, 거문고를 탄주하면 무엇하라. 금호강이 살아야 대구와 경북지방이 살고, 낙동강이 살고, 영남의 미래가 열리게 된다. 대구의 시인 이상화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하였지만, 강이 죽어버리면 들관이 죽게 되니 봄이 온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산과 물이 어울리듯이, 금호강이라는 이름이 대구의 산천을 소개하는데 있어서 산자수명한 명승지로 길이 기억되기를 소망하는 이유이다. 🌊